

제20대 대통령선거와 유권자의 투표선택: 후보자의 도덕성 요인을 중심으로

김진주 | 명지대학교

| 국문요약 |

본 연구는 후보자의 도덕성 평가를 중심으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경험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후보자 요인은 다른 투표행태 요인에 비해 주목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한국의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은 중요하며, 특히 제20대 대선은 두 거대 정당 후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후보자 요인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제20대 대선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후보자 도덕성을 중심으로 살펴본 결과, 능력과 후보자와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으로 대표되는 후보자 요인은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와 비교하였을 때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에 중점을 두어 투표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 있어서 다소 한계를 가지지만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내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주제어 |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선택, 투표행태, 후보자 요인, 후보자 도덕성

I. 서론

2022년 3월 9일, 대한민국 역사상 가장 근소한 0.73%p 차이로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이 확정되었다. 이는 지금까지 후보자 간의 득표율 격차가 가장 적었던 1997년 제15대 대통령선거에서의 1.53%p보다 작은 수치로, 국민의힘의 윤석열,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두 후보 간 선거경쟁이 매우 치열했음을 보여준다. 그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는 몇가지의 특징적인 부분이 존재했다.

우선 주요 거대 정당의 후보 모두 여의도 경험이 전무한 법조계 출신이었다. 과거 1987년 민주적 선거가 시행된 이후 주요 대통령 후보자들은 지역구 혹은 비례대표라든가 국회의원직의 경험을 가지고 있었다. 입법부에 대한 경험을 토대로 행정부와의 관계를 인지하고 더 나아가 주요 정당의 경선을 거쳐 국가 행정부의 수반직인 대통령직에 후보자로 나선 것이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국민의힘의 윤석열 두 후보는 국회의원의 경험이 없었다. 이재명 후보는 사법고시를 치르고 변호사로 활동하다가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를 거치며 행정적 경험을 쌓아왔고, 윤석열 후보는 약 27년간 검사로서 문재인 정권에서 검찰총장을 지낸 법조계 인물로 정계에 입문한 지 약 8개월에 불과한 신인이었다. 이렇듯 두 후보는 역할은 다르지만 같은 법조계 인사이며, 동시에 입법부 중심의 정치적 경험은 다소 부족하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두 후보가 대한민국 주요 두 정당의 경선을 치르고 대통령 후보자가 된 데에는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사회의 갈등과 균열이 두드러지는 선거였다. 투표행태 연구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들은 대체로 립셋과 로칸(Lipset and Rokkan 1967)의 사회균열이론에 기반을 둔 사회경제적 배경, 캠벨 외(Campbell et al. 1980)를 중심으로 진행된 미시간학파의 연구로 정당일체감에 대해 강조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 그리고 다운스(Downs 1957)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근거하여 투표하는 정책이나 이슈로 여겨져 왔다. 이 중 정당일체감으로

대표되는 사회심리학적 요인과 유권자가 합리적 선택을 한다는 합리적 선택이론은 지금까지 중요한 투표행태 요인으로 여겨져 왔다. 하지만 사회적 균열의 경우 과거 서구사회에서 자본가와 노동자, 국가와 교회 등 다양한 사회적인 균열이 집단의 정체성과 맞물려 유권자의 투표행태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오늘날에는 다소 주목받지 못해왔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특히 20대 남성과 여성을 중심으로 하는 젠더 갈등과 민주화 세대와 그 외 세대 간의 갈등이 선거과정 및 결과에서 나타났다.

셋째, 그 외에도 후보자 요인이 선거과정에 있어서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앞서 살펴본 투표행태 요인들 외에도 대통령선거는 상대적으로 후보자 개인 중심으로 선거가 치러지기에 후보자에 대한 요인도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하지만 최근 국내에서는 투표행태에 있어서 비교적 인물 중심 요인보다는 다른 요인들이 더욱 주목받아온 것이 사실이다. 또한 국내에서 연구되었던 후보자 요인은 대체로 현직 효과나 재출마 효과, 당적 변경, 선수 등 후보자의 정치적 상황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되어왔다(김한나·박명호·김민선 2009; 박성호·최선 2018; 박원호 2016; 이갑윤·이현우 2000 등). 그러나 이번 선거에서는 두 후보자가 관련되었다고 여겨지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됨과 동시에 후보자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까지 연일 언론에 보도되며 주요 후보자들의 배우자가 기자회견을 통해 사과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또한 각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된 이후 실시한 조사에서 과반 이상의 응답자들이 모든 후보자에게 낮은 호감도를 보이면서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 불리우기도 하였다(백운 2021). 이에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후보자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기존 투표행태 연구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이 증대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은 점차 약화되어 가고, 이념에 따르기보다 중도적인 이념을 가지고 이슈와 정책과 같은 그 밖에 요인들에 따라 투표선택을 결정하는 무당파, 부동층이 증가하고 있어 후보자 개인에 대한 요인은 앞으로도 중요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 특히 후보자 요인 중에서도 도덕성과 관련하여 선거과정에서 논란이 지속하였던 만큼 실제로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요인이었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II. 기존 연구 검토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요인은 사회경제적 배경, 사회심리학, 그리고 합리적 투표선택 이론과 함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투표행태에 대한 연구는 1960년대 이후 지속해서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는데, 초기에는 계급이나 집단 간의 갈등 등에서 기인한 사회적 균열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Lipset and Rokkan 1967)으로 주목받아왔으나, 이후 정당일체감과 같은 유권자의 사회심리학적 요인(Campbell et al. 1980), 그리고 다운스(Down 1957)의 합리적 선택이론에 기반을 두고 이념이나 단기적인 이슈에 대한 태도 등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야기한다는 주장이 투표행태를 설명하는 주요 원인으로 여겨졌다. 정부에 대한 회고적인 평가(Fiorina 1981)와 앞으로 국가의 경제적인 전망 평가(Chappell and Keech 1985; MacKuen et al. 1992) 그리고 단기적 이슈에 대한 중요성은 많은 연구에서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정당일체감과 회고적, 전망적 투표 그리고 이슈투표 등은 오늘날 한국 유권자에게도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으로 논의되어 왔다.

하지만 그에 반해 후보자 요인은 개념적으로 모호하고 측정과 조작적 정의가 쉽지 않기에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윤종빈 2008). 후보자 요인은 유권자가 후보자의 특성에 따라 후보자를 판단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들은 능력과 도덕성 두 가지로 구분한다(Funk 1999; Peeters 1992; Rosenberg and Sedlak 1972; Wojciszke 1997, 2005 등). 능력과 도덕성은 인식에서 다소 차이가

있는데, 능력은 후보자 자신에게 중요한 반면 도덕성을 그것을 인식하는 타인에게 더욱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Peeters 1983). 다시 말해 유권자들에게 있어 투표선택을 하는 데에 능력보다는 도덕성이 더욱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렇듯 후보자 요인 내에서도 각각의 변인들은 상이한 영향력을 보일 수 있다.

후보자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기존 연구들은 특히 후보자의 부패나 스캔들이 유권자의 투표행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주목해왔다. 대체로 스캔들에 연루되었던 후보자들은 그렇지 않은 후보자들에 비해 당선 가능성이 작아진다는 연구들이 있으며(Abramowitz 1991; Alford et al. 1994; Brown 2006; Dimock and Jacobson 1995; Peters and Welch 1980; Song 2016; Stewart 1994 등), 이는 본 선거뿐만 아니라 예비선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반면 이러한 도덕성 문제가 반드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중요하지는 않다는 주장도 존재한다(Basinger 2013; Funck and McCabe 2021; Welch and Hibbing 1997). 특히 최근 이러한 후보자의 스캔들과 관련한 도덕성 문제에 있어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을 미국 유권자를 대상으로 실험을 통해 살펴본 펑크와 맥케이브(Funck and McCabe 2021)은 후보자의 도덕성 문제가 투표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정보가 많은 환경에서는 그 영향력이 다소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덕성이 당파성의 영향을 받아 다소 투표선택에 대한 영향력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견해가 존재하지만, 이들의 연구에서는 당파성의 여부를 떠나서 유권자가 도덕성에 대한 평가로 후보자를 선택하여 처벌한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Funck and McCabe 2021).

후보자 요인에 있어서 능력과 도덕성 외에도 국내외 연구에서는 현직자 효과에 대한 연구도 다수 이루어져 왔다(Alford and Hibbing 1981; Cain et al. 1987; Cover 1977; Erikson 1972; Fenno 1978; Ferejohn 1977; Mayhew 1974 등). 하지만 이러한 현직 효과는 한국 대통령의 경우 재임과 중임이 가능하지 않기에 현직 효과가 적용될 수 없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고자 한다.

그렇다면 한국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은 어떻게 여겨져 왔는가. 대통령 선거와 같은 후보자 중심의 선거에서는 이러한 투표행태 요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으며, 한국에서는 과거 연고주의 투표행태가 강한 영향을 미친 1960-70년대에 주목받았다(길승흠 1993; 송병권·윤지성 2016; 윤종빈 2007). 연고주의에 기반을 두어 무소속으로 당선된 지역구 후보자들도 다수 존재했고, 실제 인물을 보고 투표했다는 유권자들이 1963년에는 66%, 1973년에는 55%에 달했다(길승흠 외 1987). 그리고 2000년대에 들어와 후보자 개인의 병역사항, 재산, 세금납부, 전과 기록 등 정보공개가 시행되어 확대되면서(송병권·윤지성 2016) 후보자에 대한 정보 접근이 원활해졌고, 관심도 높아졌다.

특히 한국 유권자들에게 있어 각 정당이 주요 인물을 후보자로 내세우는 대통령선거에서는 인물이 중요한 투표 결정요인이었다(김성연 2017; 안종기·이내영 2018; 윤종빈 2007). 하지만 기존 연구들이 지적하고 있듯 한국 유권자의 투표행태를 살펴보는 연구들은 후보자 요인에 대해서는 다소 적은 관심을 보이고 있었고, 특히 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윤종빈(2007)은 2007년 제17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평가함에 있어서 도덕성이 중요하게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안종기와 이내영(2018)은 2012년 제18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도덕성과 친근감이, 김성연(2017)은 같은 선거에서의 분석을 통해 후보자의 도덕성이 투표선택에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하였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가 전무하다. 추측하건대, 제19대 대통령선거가 2016년 국정농단 사태로 인해 치러진 보궐선거였기에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에 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렇기에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의 후보자 요인에 대한 연구는 국내 투표행태 연구에 있어서 후보자 요인에 대한 부분에 대한 관심을 지속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선거과정에서 주요 거대 정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두 후보자와 그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거뒀기에 후보자 요인 중에서도 도덕성

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후보자에 대한 도덕성에 덧붙여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지 않았던 후보자 가족에 대한 유권자들의 평가까지 포함함으로써 공직자에 대한 유권자의 의식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I. 연구방법

본 연구는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에 대한 논란이 적지 않았던 만큼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후보자 요인, 특히 도덕성과 관련한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고 이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기존 연구에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후보자 요인은 크게 사회경제적 배경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경제적 배경의 경우 성별, 학력, 출신 지역, 소득수준 등이 포함될 수 있고, 능력의 경우 후보자가 가진 대통령으로서의 능력, 그리고 도덕성은 후보자의 도덕성 그리고 후보자와 연관된 가족의 도덕성까지 포함될 수 있다. 하지만 사회경제적 배경은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두 주요 후보자에 대한 투표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수 있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모두 남성으로, 1960년대생이며, 법조계 출신이고, 학력 역시 대학교 졸업 이상으로 고학력에 속한다. 또한 출신 지역도 각각 서울특별시와 경상북도 안동으로 경상북도 안동의 경우 지역주의적 성향을 띠 수 있으나 서울특별시의 경우 강하게 표출되는 지역은 아니다. 그렇기에 이 두 후보에게 있어 사회경제적인 배경이 후보자 요인으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동인으로 작용했음을 지는 명확하지 않다. 그러므로 후보자 요인에 있어서 사회경제적 배경 변수보다 능력과 도덕성 요인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능력의 경우 각 후보자가 대통령으로서 어떠한 능력을 함양하고 있는지에 대해 유권자가 판단하는 것이므로 투표선택을 함에 있어 후보자의 능력을 다른 요인에 비해 중요하게 여겼다면 행정부

에 대한 경험이 있는 후보자를 선택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이에 검찰조직에 오래 근무한 윤석열 후보보다 경기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등을 역임한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도덕성의 경우 제20대 대선에서 선거운동 말미까지 후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계속 제기된 만큼 이번 선거에서 매우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경우 경선 과정 제기된 대장동 개발 특혜와 그가 경기도지사로 재직할 당시 가족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었고,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검찰총장 재직 당시 여권 인사의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과 그의 가족이 주가조작 등과 관련하여 구속되는 등 두 후보자 모두 본인 및 가족의 도덕성과 관련하여 여러 논란이 있었다. 사실관계를 떠나 이는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 도덕성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을 높여주는 부분이다.

더욱이 윤석열 후보의 경우 당시 행정부 각료들에 대항하여 공정과 정의를 강조해오면서 야권의 대통령 후보로 부상하였고(정주신 2022), 이재명 후보는 선거과정 동안 “능력”을 주장하며 자신의 행정 능력을 내세워왔다. 그렇기에 도덕성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보다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은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정의를 내세워왔기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보다 투표선택에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해볼 수 있다.

이에 앞선 후보자 요인과 관련한 변수를 주요 독립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워 검증하고자 한다.

가설1. 제20대대통령선거에서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클 것이다.

가설1-1.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윤석열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가설1-2. 후보자의 능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유권자일수록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을 것이다.

가설1-3.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은 윤석열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더욱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이를 검증하기 위해 명지대학교 미래정책센터에서 (주)한국리서치에 의뢰하여 실시한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의식조사”를 활용하고자 한다. 본 조사는 2022년 3월 9일 선거가 끝난 익일 3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실시되었으며, 전국에 거주하는 만18세 이상 남녀 1,20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표본은 성별, 연령별, 지역별로 비례 할당하였으며, 표집오차는 무작위 표집을 전제하였을 때, 신뢰수준 95% $\pm 2.8\%p$ 이다. 조사는 컴퓨터를 통한 웹조사(CAWI, Computer Assisted Web Interview)로 진행되었다.

종속변수는 제20대 대선의 투표선택으로, 이번 선거에서는 투표한 유권자의 약 96.4%가 거대 두 정당의 후보인 윤석열과 이재명에게 투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투표선택을 더미변수화하여 살펴보았다.

주요 독립변수인 후보자 요인은 능력과 출신지역,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에 대한 도덕성으로 구분하였다. 이러한 요인은 유권자가 각 후보자의 도덕성을 요인별로 객관적으로 평가한 변수를 활용해야 하지만, 데이터의 한계로 인해 유권자가 여러 가지 후보선택 요인 중 후보자 도덕성과 관련한 변수들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활용하였다. 또한 이러한 변수를 보다 명확하게 비교하고자 대통령선거에서 중요하게 고려되는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를 기준으로 그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각 변수들에 대해 얼마나 고려했는지 살펴보았다. 해당 변수의 질문을 “선생님께서 후보를 택할 때 어떤 점을 고려하십니까? 항목별로 고려하신 정도를 0~10점 사이의 숫자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0점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를, 10점은 매우 고려했다를 의미합니다.”로 소속 정당, 후보 능력, 출신 지역,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 항목이 각각 질문에 11점 리

커트 척도로 측정되었다.

그리고 투표선택에 있어서 중요한 요인으로 여겨지는 사회적 균열, 사회심리학, 이슈투표 요인 등을 통제변수로 포함하였다. 특히 사회적 균열의 경우 과거에는 이에 대한 요인의 영향력이 많이 나타나지 않았으나 이번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20대를 중심으로 남성과 여성의 젠더 갈등이 표면화되어 나타났고, 영남과 호남을 중심으로 지역주의적 균열이 한국 사회에서는 지속적으로 등장했기에 두 부분을 변수화하여 분석에 포함하였다. 사회심리학적 요인은 한국의 경우 대통령선거가 두 거대 정당의 대표자들이 나와 선거를 하는 형태이기에 정당에 대한 일체감을 통제하였다. 정당일체감은 종속변수가 윤석열 지지 여부이기에 국민의 힘 정당일체감 여부로 더미변수화하였다. 마지막으로 이슈투표의 경우 대통령선거이기에 구정권에 대한 유권자의 평가인 회고적 평가와 국가 경제에 대한 앞으로의 기대를 담은 전망적 평가, 국내에서 과거 대선에서 매번 주요 이슈로 등장했던 대북 안보에 대한 유권자의 인식, 그리고 COVID-19가 단기적인 이슈로 투표행태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기에 이에 대한 인식도 포함하였다. 마지막으로 유권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인 성별, 연령, 학력을 함께 통제하였다.

IV. 분석결과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들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특징을 보일지 기초통계분석을 수행하였다. <표 1>은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를 각각 선택한 유권자를 나누어 그들의 기초통계분석을 살펴본 것이다. 우선 성별, 연령, 거주지역, 이념, 지지 정당, 정당 선호도에 있어서 두 집단의 유권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성별의 경우 남성이 윤석열 후보를, 여성이 이재명 후보를 각각 54.9%, 53.6% 많이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p < 0.01$), 연령은 20대 이하와 60대 이상은 윤석

열 후보를, 40대, 50대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하였다($p < 0.01$). 성별과 연령대에 따른 투표선택의 차이가 어느 한 후보에게 현저하게 치우치지 않고 있으나, 이러한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볼 때, 특정 성별과 연령대의 후보자 선택이 존재하고 있었던 선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한편 거주지역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비율이 다소 높았고, 특히 호남지역의 경우 79.0%가 이재명 후보를 선택했다고 응답하여 상당한 지지를 받았음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영남지역과 수도권, 호남을 제외한 그 외 지역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선택이 많았던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존 한국 사회에 존재하던 뚜렷한 지역주의가 이번 선거결과에도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번 제20대 선거의 또 다른 특징 중 하나는 민주화 이후 역대 보수 진영 대통령 당선인 중에서 윤석열 후보자가 처음으로 호남지방인 광주광역시, 전라북도, 전라남도 모든 지역에서 두 자릿수의 득표율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두 자릿수의 지지를 받았던 당선자는 제13대 노태우 대통령이 전북지역에서 14.13%, 제18대 박근혜 대통령이 전북지역에서 13.22%를 받은 게 전부였다. 그 외에 다른 보수 진영 대통령 당선자들은 이 세 지역에서 모두 한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기록했다. 하지만 윤석열 후보자의 경우 광주광역시에서는 12.72%, 전북지역에서는 14.42%, 전남지역에서는 11.44%의 득표율을 기록하며 최초로 호남지방에서 두 자릿수 대의 득표율을 받은 당선자가 되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았을 때, 한국의 지역주의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할 수 있다.

〈표 1〉 제20대 대통령선거 유권자 투표선택 기초통계분석(%)

	윤석열 선택	이재명 선택	n	통계량
성별				
남	54.9	45.1	543	$\chi^2=7.621$, $df=1$, $p<0.01$, N=1052
여	46.4	53.6	509	
연령대				

	윤석열 선택	이재명 선택	n	통계량
20대 이하	58.6	41.4	174	$\chi^2=78.260, df=4, p<0.01, N=1052$
30대	50.0	50.0	148	
40대	32.3	67.7	189	
50대	36.9	63.1	206	
60대 이상	66.3	33.7	335	
교육수준				
중졸 이하	53.8	46.2	26	$\chi^2=1.392, df=2, p=0.499, N=1052$
고졸	48.6	51.4	440	
대졸이상	52.2	47.8	586	
거주 지역				
수도권	47.1	52.9	529	$\chi^2=65.567, df=3, p<0.01, N=1053$
호남	21.0	79.0	105	
영남	63.9	39.1	263	
그 외 지역	61.5	38.5	156	
이념				
평균 (0=진보, 10=보수)	6.48	4.38		t=18.400, p<0.01, N=1052
지지 정당				
더불어민주당	2.8	97.2	250	$\chi^2=505.302, df=4, p<0.01, N=589$
국민의힘	97.0	3.0	302	
정의당	6.7	93.3	15	
국민의당	75.0	25.0	16	
기타	66.7	33.3	6	
정당 선호도 평균				
더불어민주당	2.12	6.38		t=-29.326, p<0.01, N=1052
국민의힘	6.51	2.24		t=28.774, p<0.01, N=1052
전체(N)	50.8(534)	49.2(518)		

한편 유권자의 정치적 정향을 살펴볼 수 있는 이념과 지지 정당, 그리고 정당 선호도는 두 후보자 선택 집단 간의 명확한 차이가 나타났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집단의 이념적 평균은 6.48점,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집단의 평균은 4.38점으로 2.1점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러한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p < 0.01$). 즉, 스스로 보수적인 이념을 가졌다고 평가하는 유권자일수록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이다. 지지 정당의 경우도 명확한데, 더불어민주당 지지자의 97.2%는 이재명 후보를, 국민의힘 지지자의 97%는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다. 한편 흥미로운 부분은 선거 직전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가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와 단일화를 이루었음에도 국민의당 지지자들의 투표선택이 모두 윤석열 후보에게 가지 않았다는 점이다. 물론 여론조사시기에 많은 수는 아니지만, 단일화의 효과가 대통령선거에서 어느 정도인지 후속연구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정당 선호도도 이념과 같이 10점 만점에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집단과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집단 간의 정당 선호도의 이념 평균의 차이도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요컨대, 제20대 대선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남성, 20대 이하 및 60대 이상, 영남 및 그 외 지역, 보수적 이념성향, 국민의힘 지지자, 국민의힘 선호자가 윤석열 후보를 선택하였다.

주요 독립변수를 살펴보기 이전에 기존 투표행태 연구에서 주요한 선택 요인으로 여겨지는 변수들에 대해 알아보았다. 사회경제적 요인과 심리학적 요인은 앞서 <표 1>에 제시하였기에, 합리적 선택에 근간을 둔 요인에 대해 종속변수와 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먼저 회고적 평가에 있어서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따라 투표선택이 다른지 <표 2>에서 분석한 결과, 야당 후보자인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지지자들의 92.8%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지지자들의 경우 71.7%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는데, 상대적으로 윤석열 후보선택 유권자들에 비해 그 수치가 높은 편은 아니었으며, 20.1%는 잘못하고 있는 편이라고 응답했기에 문재인

정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유권자들 전반에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하지만 매 정권 말기에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는 경우가 많지 않았고, 집권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45%에 달하며 민주화 이후 역대 정권 중 가장 높은 집권 말 국정 지지율을 보이기에(이윤주 2022), 국정평가가 투표선택에는 영향을 미쳤을 수 있으나 정권 교체에 큰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연구해봐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표 2〉 문재인 정부 국정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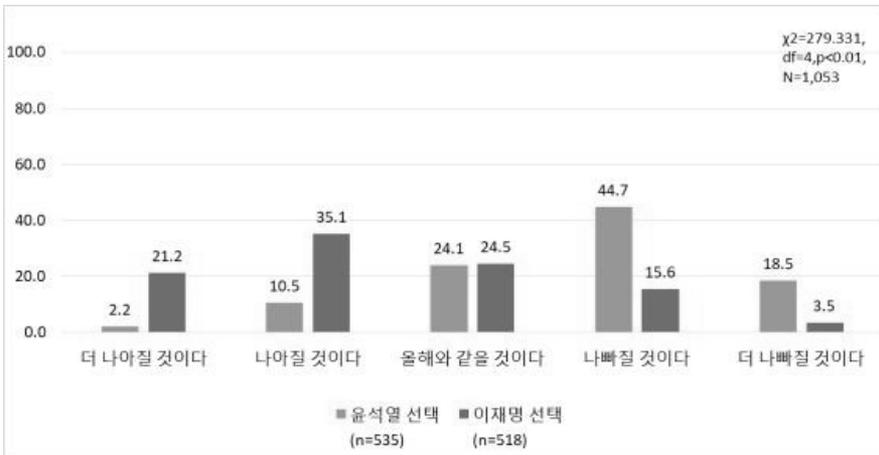
	매우 잘못하고 있다	잘못하고 있는 편이다	잘하는 편이다	매우 잘하고 있다	n
윤석열 선택	64.4	28.4	5.4	1.7	517
이재명 선택	8.2	20.1	51.8	19.9	488
χ^2 검정	$\chi^2=492.748, df=3, p<0.01, N=1005$				

또 다른 합리적 선택 요인인 국가 경제에 대한 전망적 평가는 <그림 1>에 제시하였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63.2%가 1년 후 국가 경제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부정적인 평가는 19.1%, 긍정적인 평가가 56.3%로 나타나 여당의 후보를 지지한 유권자인 만큼 앞으로의 국가 경제에 있어서도 긍정적으로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는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전망적 평가가 반영되었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경제평가 외에도 단기적인 이슈가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한국에서는 분단국가인 만큼 대북 안보와 관련하여 대통령선거마다 안보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이는 보수 진영의 후보자가 당선되었을 때 그 효과가 더욱 나타나 왔으며, 보수정당에게 있어서 안보 이슈는 중요한 정책적 쟁점이기도 하다. 이번 선거에서도 윤석열 후보는 “힘을 통한 평화”를 강조하며 비핵화를 최우선으로 내세워 보수적 시각을 보여준 반면, 이재명 후보는 평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경제체제 수립을 주장해왔다(BBC NEWS 코리아,

2022). 따라서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도 대북관련 이슈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제20대 대선 유권자들은 어떠한 인식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이 실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유권자들에게 북한에 위협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지 질문한 결과,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위협적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73%에 달하지만,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45.2%만이 위협적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이재명 후보자 선택 유권자들의 19.1%가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한 반면, 윤석열 후보자 선택 유권자들은 단 5.4%만이 위협적이지 않다고 응답하여 두 집단 간의 대북 안보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극명한 것으로 알 수 있다.

〈그림 1〉 1년 후 국가 경제 상황 전망(%)



〈표 3〉 대북 안보 위협에 대한 유권자 인식(%)

	매우 위협적이지 않다	위협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위협적이다	매우 위협적이다	n
윤석열 선택	1.1	4.3	21.5	48.3	24.7	518
이재명 선택	1.7	17.4	35.7	36.9	8.3	534

	매우 위협적이지 않다	위협적이지 않다	보통이다	위협적이다	매우 위협적이다	n
χ^2 검정	$\chi^2=111.702, df=4, p<0.01, N=1052$					

참고: 질문항 “선생님께서서는 현시점에서 북한에 의한 군사적 위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편 COVID-19는 2019년 이후 전 세계적인 위협으로 인지되어왔다. 이번 대선에서 포스트 COVID-19 시대에 앞서서 차기 정부의 방역대책 방안이 주요 관심사였던 만큼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는 데에 있어서 감염성 질병이 중요한 이슈로 작용했을 수 있다. 더욱이 COVID-19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의 행정부의 방역체계와 시스템에 대해 평가하는 주요한 지표가 되기도 했다. 따라서 COVID-19에 대한 위협이 당시 정부에 대한 운영 평가로 이어져 여당과 야당 후보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에 앞으로 이러한 전염병에 대한 위협을 유권자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종속변수인 투표선택과 관련하여 살펴보았다. <표 4>에 따르면, 윤석열, 이재명 선택 유권자들 모두가 앞으로 감염성 질병 위협에 대해 계속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었으며, 통계적으로 투표선택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다.

<표 4> 감염성 질병 위협에 대한 유권자 인식(%)

	전혀 아니다	아니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n
윤석열 선택	41.9	50.4	6.4	0.9	0.4	518
이재명 선택	41.7	51.5	6.0	0.8	0.0	534
χ^2 검정	$\chi^2=2.160, df=4, p=706, N=1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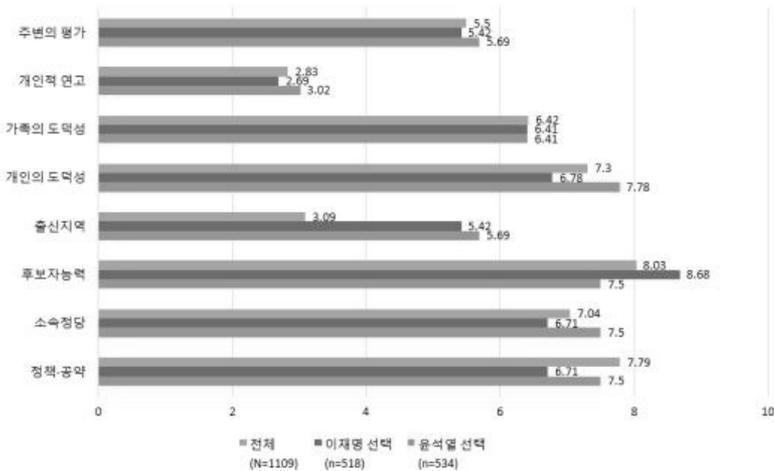
참고: 질문항 “선생님께서서는 코로나19, 메르스, SAS 등의 감염성 질병이 앞으로 계속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존 연구들에서 검증한 주요 투표행태 요인들을 제20대 대선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살펴본 결과, 정부의 국정을 평가하는 회고적 평가요인과 앞으로의 국가

경제를 기대하는 전망적 요인, 그리고 대북 안보에 대한 이슈 요인이 투표선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요인일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는 다른 변수와의 관계를 통제된 상태에서 살펴본 결과가 아니기에 회귀분석을 통해 면밀하게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이어서 본 연구에서 주요한 독립변수로 여기고 있는 후보자 요인 중 능력과 도덕성 변수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후보자 선택에 있어 어떠한 요인을 중점적으로 고려했는가. 다른 문항들과 함께 <그림 2>를 통해 살펴본 결과,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했던 후보자 선택 요인은 평균 8.03점으로 후보 능력이었으며, 다음으로는 정책·공약이 평균 7.79점, 개인의 도덕성이 평균 7.3점이었다. 하지만 선택한 후보자를 두 거대 정당 후보자로 좁힐 경우에는 후보 능력에 대한 고려가 평균 8.09점, 그리고 뒤이어 개인의 도덕성이 평균 7.28점으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능력과 개인의 도덕성 두 가지의 후보자 요인이 유권자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연구가설의 채택 가능성을 보여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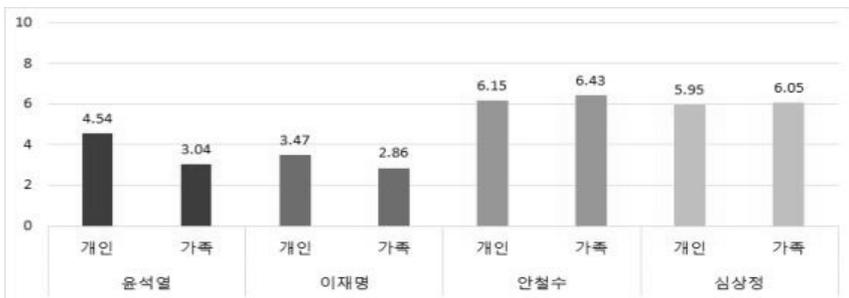
<그림 2> 제20대 대선 유권자의 후보자 선택 중점 요인



또한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후보자 능력(평균 8.68점), 개인의 도덕성(평균 6.78점), 정책 및 공약과 소속 정당(각각 평균 6.71점) 순서로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했다고 응답했으며,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는 개인의 도덕성이 평균 7.78점으로 가장 높았고, 후보 능력, 정책 및 공약, 소속 정당이 평균 7.5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이재명 후보의 행정부처 경험이 그에 대한 선택을,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는 상대적으로 개인에 대한 논란은 적었던 도덕성 관련된 부분이 선택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덧붙여 도덕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후보자 및 후보자 가족 간의 유권자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그림 3>을 보면 제20대 대선의 주요 후보자였던 윤석열과 이재명 후보자 및 그들의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다른 후보자와 가족들에 대한 평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그중 이재명 후보에 대한 도덕성 평가는 가장 부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평균 3.47점으로 나타났으며, 그의 가족에 대해서는 평균 2.86점에 불과했다. 이는 비록 단일화를 통해 최종적으로 선거에는 참여하지 않았으나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안철수 후보의 개인 평균 6.15점, 가족 평균 6.43점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치이다. 이재명 후보 및 가족의 도덕성 논란은 이번 선거과정에서 대장동 사업 및 법인카드 사적 사용 등으로 지속되었기에 이러한 평가가 유권자들 사이에서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3> 제20대 대선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가



	윤석열 선택(n=534)	이재명 선택(n=518)	통계량
윤석열	6.46	2.85	t=16.26, p<0.01
이재명	1.33	5.70	t=-30.18, p<0.01
윤석열 가족	4.30	1.79	t=16.26, p<0.01
이재명 가족	1.28	4.41	t=-22.54, p<0.01

참고: 응답 0=“매우 낮다”,..., 5=“보통”,..., 10=“매우 높다”

투표선택에 따라서도 후보자 및 가족의 도덕성 평가는 다르게 나타난다.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의 경우 윤석열 후보에 대한 도덕성 평가가 평균 6.46점으로 굉장히 높은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5.13점이나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그에 반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자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이재명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균 5.7점을 윤석열 후보자에 대해서는 평균 2.85점을 부여해 2.85점의 차이밖에 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투표행태를 떠나서 유권자들은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자와 그의 가족들의 도덕성을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나, 윤석열 후보자 및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균이 이재명 후보자와 가족에 대한 도덕성 평균보다 높은 것을 볼 수 있었다.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살펴본 결과 이번 제20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도덕성 요인과 능력 요인인 후보자 요인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후보자의 도덕성이 영향을 미쳤을까. 투표에 참여한 유권자만을 대상으로 그들의 투표선택에 어떠한 요인이 작용했는지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투표 참여에서 정당일체감의 영향력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대통령선거 자체가 정당을 대표한 후보자들이 출마하는 선거이기에 유권자들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소속 정당의 중요성은 클 것이다. 이에 소속 정당에 대한 유권자의 투표선택 고려 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요인의 정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후보자 요인 중에서도 어떠한 요인을 유권자들이 투표선택에 고려하였는지를 변수로 포함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 선택에 있어서 가장 강한 영향력을 미친 요인은 각

후보자의 소속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이었다(회귀계수 2.545, 오즈비 12.744, $p < 0.01$ / 회귀계수 3.201, 오즈비 24.562, $p < 0.01$). 이는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를 선택함에 있어서 후보자 개인이나 그 외에 다른 요인보다도 그들이 소속된 정당에 중점을 두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렇듯 한국의 대통령선거는 후보자가 각 정당을 대표하며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만큼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도 사회심리학적 요인인 정당일체감이 무엇보다 중요한 투표선택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정당일체감이 투표선택에 상당히 중요한 영향력을 미쳤음에도 그 외 다양한 변수들의 영향력이 투표선택에서 확인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 주목하고자 하는 후보자 요인이 윤석열, 이재명 두 후보자 선택에서 모두 소속 정당과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에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우선 윤석열 후보 선택에 경우 유권자가 투표선택에 있어서 소속 정당과 비교하여 후보자 요인에 대한 고려를 살펴본 결과, 후보자 능력에 대한 고려가 적을수록,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에 대해 더욱 고려할수록,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고려가 적을수록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은 후보자의 능력이나 가족의 도덕성보다는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을, 그리고 후보자가 소속된 정당보다는 후보자 개인의 도덕성에 더욱 중점을 두고 투표선택을 한 것이다. 이는 국민의힘이라는 윤석열 후보의 소속 정당이 그의 능력과 가족의 도덕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선거 승리에 있어서 도움이 되었던 반면, 후보자 도덕성에 대해서는 소속 정당보다 투표선택에 있어서 중요하게 고려된 대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이재명 후보 선택에 있어서는 윤석열 후보 선택과 상반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에 비해 후보자 능력에 대한 고려가 클수록,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에 대한 고려가 작을수록, 후보자 가족에 대한 고려가 클수록 이재명 후보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았다. 즉, 소속 정당보다 후보자의 능력과 후보자 가족의 도덕성을 더욱 고려할수록, 후보자의 도덕성보다 소속 정당을 더욱 고려할수록 이재명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이는 윤석열 후보 선택과는

다른 결과로 윤석열 후보 선택에는 후보자의 도덕성이 중요하게 고려되었으나, 이재명 후보 선택에는 후보자의 능력과 가족의 도덕성이 중요하게 여겨진 것으로 본 연구에서 주목한 후보자 도덕성 요인이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이라는 것을 경험적으로 증명한 결과일 뿐만 아니라 이번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에게는 능력에 대한 유권자의 기대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도덕성에 대한 기대가 투표선택에 더욱 작용하였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밖에도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20대 남성일수록, 호남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영남에 거주할수록, 이념이 보수적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 경제를 비관적으로 전망할수록,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낄수록, COVID-19와 같은 질병 위협을 느끼지 않을수록,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투표한 반면,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는 호남에 거주할수록, 영남에 거주하지 않을수록, 이념이 진보적일수록,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을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향후 국가 경제를 긍정적으로 전망할수록, 북한에 대한 안보 위협을 느끼지 않을수록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제20대 대선의 투표선택에 있어서 많은 요인의 유의미한 영향력이 발견되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점은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할 때 후보자의 도덕성 및 능력과 같은 후보자 요인을 고려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표 5〉 제20대 대통령선거 투표선택 요인

		윤석열 후보 선택		이재명 후보 선택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후보자 요인 ^{a)}	후보자 능력	0.432*** (0.064)b)	1.541 (0.099)	-0.523*** (0.060)	0.593 (0.036)
	후보자 출신지역	-0.021 (0.037)	0.980 (0.036)	0.025 (0.034)	1.025 (0.035)
도덕성	후보자	-0.410*** (0.072)	0.663 (0.048)	0.562*** (0.081)	1.753 (0.141)
	후보자 가족	0.175***	1.191	-0.250***	0.779

			윤석열 후보 선택		이재명 후보 선택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0.064)	(0.072)	(0.064)	(0.051)
사회 계급적 요인	경제	주관적 계층	-0.017 (0.064)	0.984 (0.063)	0.058 (0.063)	1.060 (0.067)
		젠더	20대 남성	1.183** (0.513)	3.265 (1.676)	.
	20대 여성		.	.	0.453 (0.433)	1.573 (0.682)
	지역	호남	-1.407*** (0.395)	0.245 (0.097)	0.0853** (0.357)	2.347 (0.836)
		영남	0.519** (0.255)	1.680 (0.429)	-0.705*** (0.234)	0.494 (0.115)
사회심리학적 요인	국민의힘 정당일체감		2.545*** (0.393)	12.744 (5.005)	.	.
	더불어민주당 정당일체감		.	.	3.201*** (0.480)	24.562 (11.779)
보수적 이념			0.346*** (0.061)	1.414 (0.087)	-0.340*** (0.061)	0.712 (0.043)
합리적 선택 요인	회고적	문재인 정부 평가	-0.952*** (0.105)	0.386 (0.041)	0.560** (0.098)	1.751 (0.172)
	전망적	국가 경제 전망(비관)	0.790*** (0.112)	2.204 (0.247)	-0.612*** (0.102)	0.542 (0.055)
이슈 요인	대북 안보 위협		0.291** (0.129)	1.338 (0.173)	-0.380*** (0.125)	0.684 (0.085)
	COVID-19와 같은 질병 위협		-0.366** (0.161)	0.693 (0.111)	0.059 (0.160)	1.060 (0.169)
통제 변수	남성		-0.035 (0.215)	0.965 (0.207)	-0.031 (0.206)	0.969 (0.199)
	연령		0.019** (0.009)	1.020 (0.009)	-0.031 (0.008)	0.995 (0.007)
	학력 수준		0.382* (0.206)	1.465 (0.302)	-0.046 (0.190)	0.955 (0.182)
상수항			-4.978*** (0.983)	0.007 (0.007)	2.920*** (0.967)	18.543 (17.930)
Chi-square			243.16***		223.46***	

	윤석열 후보 선택		이재명 후보 선택	
	회귀계수	승산비	회귀계수	승산비
Log Likelihood	-301.969		-327.996	
Pseudo R ²	0.6067		0.5719	
N	1108		1108	

참고 : * p<0.1, ** p<0.05, *** p<0.01

a) 후보자 요인은 이번 선거에서 소속 정당에 중점을 두어 투표했다는 응답의 정도를 기준으로 각 후보자 요인에 중점을 두어 투표했다는 응답과의 차이를 살펴봄. 이에 해당 변수들은 “소속 정당 중점”-“각 후보자 요인”으로 변수 계산하여 코딩함.

V. 결론 및 함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대통령은 국민의 대표이자 행정부의 수반으로 이를 선출하는 선거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다. 대한민국은 1987년 민주화를 이룩한 뒤 직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해 왔고, 2022년 3월 9일 제20대 대통령을 결정하였다. 이러한 대통령 선출에 있어서 유권자는 더욱 다양한 요인에 주목하여 투표선택을 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헌정사상 가장 적은 득표율 차이를 기록하였고, 이에 여느 선거보다 유권자가 어떠한 요인에 기반을 두고 투표를 했는지가 현실적, 학술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더욱이 선거과정에서 주요 정당의 두 후보자의 도덕성이 논란이 된 만큼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더욱 컸을 것으로 보고, 본 연구는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선택에서의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제20대 대선에서 후보자의 도덕성은 중요한 유권자의 투표선택 요인이었다. 유권자들에게 다양한 변수에 대해 후보자 선택에 있어서 어느 정도 중요하게 고려했는지 질문한 결과, 전체 유권자와 이재명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후보자의 능력이 많이 고려되었으나 윤석열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에게 있어서는 개인의 도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였다.

더욱이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고서도 후보자 요인이 투표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기존 연구 결과에 덧붙여 후보자 개인에 대한 도덕성이 제20대 대선에서도 중요했다는 점을 검증하였다. 제20대 대선 후보자 투표선택과 관련하여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두 주요 후보자 선택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이 다른 요인들을 통제된 상태에서도 나타났으며, 특히 소속 정당에 대한 고려와 비교하였을 때 유권자들은 윤석열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도덕성을, 이재명 후보의 경우 소속 정당보다는 후보자의 능력에 중점을 두어 투표선택을 한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후보자 요인이 실제 투표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며 이번 선거에서 후보자 개인이 내세운 강점이 유권자들에게도 전달되어 투표선택으로 이어졌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20대 대선은 두 거대 정당의 후보자가 치열한 접전을 펼치며 마무리되었다. 여의도 경험이 전무하고, 국민 대다수에게 호감이 높지 않은 두 후보자의 경쟁은 국민으로부터 대통령을 누구로 선출할지 더욱 큰 고민을 하게 만든 선거이기도 하다. 선거에서 투표행태에는 여러 요인이 논의되지만,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는 대다수 유권자의 후보선택에 다양한 요인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그렇기에 제20대 대선의 결과는 실제적, 학술적으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데이터에 있어서 다소 한계를 가지지만 제20대 대선에서 유권자의 투표행태 요인을 경험적으로 검증해내었으며, 특히 많은 연구에서 주목하지 않았던 후보자 요인의 중요성을 확인했다는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투표행태 요인 중 후보자 요인에 대한 연구가 국내에서 지속되길 기대한다.

참고문헌

- 길승흠. 1993. “한국인의 정치의식구조 변화.” 『한국정치학회보』 26집 3호, 133-152.
- 길승흠, 김광웅, 안병만. 1987. 『한국선거론』. 서울: 다산출판사.
- 김성연. 2017.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 패널 데이터 분석 결과.” 『한국정치연구』 26집 3호, 175-204.
- 김한나·박원호. 2016. “제20대 총선의 후보자 당선결정요인: 정당의 공천방식과 후보의 경쟁력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26집 2호, 51-76.
- 박명호·김민선. 2009. “후보자 요인, 현직 효과 그리고 정치적 경쟁.” 『정치정보연구』 12집 1호, 165-179.
- 박성호·최선. 2018. “한국 국회의원 선거의 후보자 요인: 재출마 효과를 중심으로.” 『미래정치연구』 8집 1호, 87-115.
- 백운. 2021. “[여론조사] 대선후보 호감도…이재명 37.9% 윤석열 43%.” 『SBS 뉴스』 (11월 8일),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526961&plink=COPYPASTE&cooper=SBSNEWSEN
- 송병권·윤지성. 2016. “후보자 전과 기록이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제19~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중심으로.” 『한국정치연구』 25집 3호, 85-107.
- 안종기·이내영. 2018. “투표선택에 미치는 정치후보자 이미지의 효과와 역할: 한국의 2012년 제 18대 대통령선거 분석.” 『한국정치연구』 27집 1호, 281-314.
- 윤종빈. 2008. “17 대 대선과 후보자 요인.” 『현대정치연구』 1집 1호, 59-83.
- 이갑윤·이현우. 2000.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요인의 영향력: 14-16대 총선을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4집 2호, 149-170.
- 이윤주. 2022. “문 대통령 마지막 국정 지지율 45%...87년 직선제 부활 후 가장 높았다.” 『한국일보』 (5월 6일),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50615130005989>
- 정주신. 2022.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야당(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대선전략과 성공요인 분석.” 『한국과 세계』 4집 3호, 55-86.

- BBC NEWS 코리아. 2022. “대선 D-40: 이재명·윤석열 대북정책 공약... '평화협력' vs 비핵화.” (1월 28일),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0137085>
- Abramowitz, Alan I. 1991. “Incumbency, Campaign Spending, and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U.S. House Elections.” *Journal of Politics* 53(1): 34-56.
- Alford, J. R., and Hibbing, J. R. 1981. “Increased incumbency advantage in the House.” *The Journal of Politics* 43(4): 1042-1061.
- Alford, John, Holly Teeters, Daniel S. Ward, and Rick K. Wilson. 1994. “Overdraft: The Political Cost of Congressional Malfeasance.” *Journal of Politics* 56(3): 788-801.
- Basinger, S. J. 2013. “Scandals and congressional elections in the post-Watergate era.” *Political Research Quarterly* 66(2): 385-398.
- Brown, L. M. 2006. “Revisiting the character of Congress: Scandals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1966-2002.” *Journal of Political Marketing* 5(1-2): 149-172.
- Cain, B., J. Ferejohn, and M. Fiorina. 1987. *The Personal Vote*. Cambridge, MA: Harvard University Press.
- Campbell, A., Converse, P. E., Miller, W. E., and Stokes, D. E. 1980. *The American Voter*.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Chappell, H. W., and Keech, W. R. 1985. “A New View of Political Accountability for Economic Performance.”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1): 10-27.
- Cover, A. 1977. “One Good Term Deserves Another: The Advantage of Incumbency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1(3): 523-41.
- Dimock, M. A., and Jacobson, G. C. 1995. “Checks and Choices: The House Bank Scandal's Impact on Voters in 1992.” *The Journal of Politics* 57(4): 1143-1159.
-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Political Action in a Democracy.”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65(2): 135-150.

- Erikson, R. 1972. "Malapportionment, Gerrymandering, and Party Fortunes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6(4): 1234-45.
- Fenno, Richard F. Jr. 1978. *Home Style: House Members in Their Districts*. Boston: Little, Brown.
- Ferejohn, J. 1977. "On the Decline of Competition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1(1): 166-76.
- Fiorina, Morris P. 1981, *Retrospective Voting in American National Election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 Funck, A. S., and McCabe, K. T. 2022. "Partisanship, Information, and the Conditional Effects of Scandal on Voting Decisions." *Political Behavior* 44(3): 1389-1409.
- Funk, Carolyn L. 1999, "Bringing the Candidate into Models of Candidate Evaluation," *The Journal of Politics* 61(3): 700-720.
- Lipset, S. M., and Rokkan, S. (Eds.). 1967. *Party Systems and Voter Alignments: Cross-national Perspectives (Vol. 7)*. Free Press.
- MacKuen, M. B., Erikson, R. S., and Stimson, J. A. 1992. "Peasants or Bankers? The American Electorate and the US Economy."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86(3): 597-611.
- Mahyew, D. 1974. "Congressional Elections: The Case of the Vanishing Marginals." *Polity* 6(3): 295-317.
- Peeters, G. 1992. "Evaluative Meanings of Adjectives in Vitro and in Context: Some Theoretical Implications and Practical Consequences of Positive-Negative Asymmetry and Behavioral-adaptive Concepts of Evaluations." *Psychologia Belgica* 32(2): 211-31.
- Peters, J. G., and Welch, S. 1980.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4(3): 697-708.
- Rosenberg, S., and Sedlak, A. 1972. "Structural Representations of Implicit Personality Theory." In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6), pp. 235-297.

Academic Press.

- Song, B. K. 2016. "Media Markets and Politicians Involved in Scandals." *The Social Science Journal* 53(4): 389-397.
- Stewart III, C. 1994. "Let's Go Fly a Kite: Correlates of Involvement in the House Bank Scandal." *Legislative Studies Quarterly*, 521-535.
- Welch, S., and Hibbing, J. R. 1997. "The Effects of Charges of Corruption on Voting Behavior in Congressional Elections, 1982-1990." *The Journal of Politics* 59(1): 226-239.
- Wojciszke, B. 1997. "Parallels between Competence-versus Morality-related Traits and Individualistic versus Collectivistic Value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7(3): 245-256.
- _____. 2005. "Affective Concomitants of Information on Morality and Competence." *European Psychologist* 10(1): 60-70.

투고일: 2022.10.07. 심사일: 2022.11.24. 게재확정일: 2022.11.24.
--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and Voting Choice in the Korean Electorate: Focusing on the Candidate's Morality

Kim, Jinju | Myongji University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voting behavior of Korean electorate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ith a focus on the morality of candidates. Especially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there was a moral controversy about the two majority party candidates and their families. As a result of examining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with a focus on candidate morality, it was confirmed that candidate factors represented by ability and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 and the candidate's family were important factors in voting choice. Compared with the consideration of party affiliation, voters voted for Yoon Suk-yeol by the morality of the candidate and for Lee Jae-myung by their ability. Although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erms of data, it has the meaning of confirming the importance of candidate factors in the voting behavior of voters in the 20th presidential election.

Key Words | 20th Presidential Election, Voting Choice, Voting Behavior, Candidate Factor, Candidate's Morality